

사회

# 말다툼 끝... 식당 주인 살해 후 자살 정신병원 입원시킨 노모·친형 살해

## 광주서 살인사건 잇따라 충격

대낮 도심 식당에서 손님인 말다툼 끝에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정신 지체를 앓고 있는 50대가 노모와 친형을 찾기에 살해하는 등 '충동살인'이 잇따라 발생했다.

4일 오후 4시17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식당에서 주인 J(여·63)씨와 손님 정모(55)씨가 함께 흥기에 찢려 숨져있는 것을 J씨의 아들(35)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J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식당으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담을 넘어 들어가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J씨는 복부와 가슴 등을, 정씨는 복부를 각각 흥기에 찢린 채 숨져 있었다.

J씨 등이 쓰러진 옆에는 평소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흥기가 놓여져 있었으며, 출입문은 식당 내부에서 잠겨져 있었다. 식당 인근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식당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체장애 4급인 정씨는 평소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J씨와 자주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일에도 J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J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가 자신에 대한 경찰



4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식당에서 손님 정모(55)씨가 주인 J(여·63)씨를 흥기로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정씨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로 형(59)과 어머니(89)의 왼쪽 가슴·손목·등을 20여 차례 찢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1999년부터 형과 노모가 자신을 담양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강도·절도 등 전과 8범인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담양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에서 생활해 왔으며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는 이유로 형과 자주 말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최씨는 지난해 초 말다툼 중 형을 유리창문으로 밀쳐 목에 상처를 남긴 혐의로 북부경찰에 입건됐었다. 최씨는 경찰에서 "가족들이 평소 나를 무시하고 따돌렸다.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지난 3일 북구 유동 여인숙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했다. 북부경찰은 4일 최씨에 대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한봉농가 벌통소각 시위

## '남충봉아부패병' 큰 피해... 정부 대책 촉구

'토종벌 괴질'로 불리는 남충봉아 부패병이 전남 지역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당한 농가들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가 막대함에도 정부가 농업재해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농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례한봉협회는 6일 오전 11시 구례군 문척면 문척교 아래에서 감염된 벌통 2000통을 소각하는 행사를 갖는다. 또 12일에는 전남지역 한봉 사육농가들이 과전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서 피해보상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남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유충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유충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어 큰 피해를 불러온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남지역에 발생한 남충봉아부패병은 3개월 새 한봉과 양봉을 합쳐 10만 1742군(1군에 벌 3~4만마리)에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은 252억원에 이른다.

이중 한봉은 7만4308군이 감염돼 193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양봉은 2만7434군, 5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남지역 벌 사육농가의 80%에 이르는 수치로, 특히 곡성군과 구례군, 화순군, 장성군 등의 한봉 사육농가에 큰 시름을 안겼다.

전남지역 최대 한봉 지역인 구례군은 770 농가 중 99%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50억여원에 이른다.

피해 농가들은 꿀 수확량이 평년과 비교 70~90%까지 급감했지만 현재까지 발병 원인과 전파 경로도 밝혀지지 않았다.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은 오염지역 농가를 격리하고 소독약품 지원하는 등의 예방조치에 머물고 있다.

구례한봉협회 관계자는 "가족제 보험 보장 범위에 남충봉아부패병을 포함하고 피해농가에 농축산경영자금을 확대하는 등 생계 차원의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 원산지 허위표기 검찰, BBQ 수사

##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 여러 단계 거쳐 범행 대기업 간부도 당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여러 범행 단계를 거쳐 피해자들을 안락시키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남지역 모 대기업 간부 A(55)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2630만원을 뜯긴 것은 지난달 30일, A씨는 우체국 지배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돼 두 차례 방문했으나 집이 비어 그냥 돌아왔다"는 말에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배원은 "그럼 금융 정보가 샌 것 같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다고 한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뒤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라. 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곧바로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고 한 남성이 금융원 과장

이라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 민원실로 알아보라며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자신들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고도의 술수를 사용한 것이다.

A씨의 전화에 민원 담당이라는 남성은 전후 사정을 들은 뒤 "계좌에서 돈이 새고 있다. 빨리 조치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등을 물어왔고 다급한 A씨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고 말았다.

그러나 어딘지 찝찝했던 A씨는 인근 거래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조회를 했지만, 한발 늦은 뒤였다. 불과 몇 분 사이 2630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조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며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현금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BQ는 브라질산 가공 닭고기를 브라질산과 국내산으로 이중 표기하고 미국산 디본비큐 닭고기는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지난 4월 송파구 문정동 본점에서 관리자 실수로 원산지를 잘못 표기했다"며 표기 오류를 인정했지만 범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BBQ는 "국내산 물량이 부족한 부분육에 대해 일부 외국산을 사용했는데, 이제까지 국내산만 사용해오던 부위에서 메뉴판 교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노래 마이크 독점에 "술값 못 줘"

○유홍주점에 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40대 남성이 다른 손님들이 계속 마이크를 놓지 않아 소란을 피웠다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5·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4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배모(여·55)씨의 유홍주점 홀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한 시간 가량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배씨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니 술값을 줄 수 없다"며 소란을 피웠는데, 경찰에서 이씨는 "옆 테이블 손님들만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대법·헌재 사칭 '짱통 트위터' 조심

#### 로고까지 모방... 이용자 피해 우려

단문송수신서비스인 '트위터(www.twitter.com)'에 대법원 등 사법기관을 모방한 계정이 등장해 이용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계정 운영자가 특정 관료나 사회 현안에 대해 사건을 괴적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일반 사용자들은 이를 대법원 등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믿을 개연성이 크지만, 사정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일 현재 트위터에는 대법원 웹사이트 주소(www.scourt.go.kr)를 본뜬 'scourt-kr'라는 계정이 등록돼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대법원 로고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언론보도판결', '판례속보'란 제목으로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대법원의 관련 사이트를 연결해 놓아, 이용자들이 대법원의 공식 계정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위터 등록 계정이 없는 대법원은 지난주 "트위터 운영자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아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정을 찾아냈다.

계정 소유자는 대법원 외에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혼동할 수 있는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 트위터사의 한국 관리자를 통해 소유자에게 로고 사용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중생 승객에 수십차례 음란전화

#### 서부경찰, 택시기사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4일 자신의 택시를 탔던 여중생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성적 농담을 한 택시기사 이모(5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5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광주 모 중학교 3년 A(14)양에게 전화를 건 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7월 초께 우연히 자신의 택시에 탔던 A양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사귀자" 거절에 동호회원 성폭행

#### 동부경찰, 20대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4일 자신과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한 인터넷 동호회원을 성폭행한 김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길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여·21)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밤 9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일대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만난 뒤 A씨에게 "사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양동 빌라서 화재 60대 집주인 숨져

지난 3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모 빌라 2층 이모(60)씨의 집에서 불이나 이씨가 숨졌다. 이날 불은 집 내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통쾌한 편입성공 10월에 시작하라! 34년 연속 대학편입 합격자 수 1위

# 김영편입학원

## 10월에 시작하는 5개월 완성 프로젝트

### 10월신규반 특설, 상위권반

###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이제부터 노하우와 정보력이 편입 합격을 결정한다.  
34년동안 합격생 수 1위, 김영의 증명된 성공전략과  
14만여 명의 합격자를 분석한 데이터를 믿고 흔들림 없이 도전하라!

##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개강 10월 4일